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주택 개발 시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적용

<https://www.dezeen.com/2023/12/19/biodiversity-net-gain-explain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housing-developments-to-deliver-nature-boost-in-landmark-move>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biodiversity-net-gain>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모든 주택 개발 시 최소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BNG)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 BNG)’은 개발 이전과 비교하여 식물, 동물, 곤충,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 특정지역 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해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순이익)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21년 환경법(Environment Act)에 이를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법안으로 2030년까지 생물종 감소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개발로 인해 손실되거나 자연 서식지를 조성·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얻는 생물다양성 단위를 계산하기 위해 법정 생물다양성 측정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자와 토지관리자 및 지역계획 당국을 위한 단계별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발 현장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외부 단위를 통해 생물다양성 순이익을 달성하거나 정부로부터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을 구입해야 하며, 정부는 크레딧을 활용하여 영국 내 서식지 조성에 투자하게 된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서식지를 조성 및 개선하고, 목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30년 동안 해당 서식지를 관리할 법적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등록된 단위의 생물다양성을 생성·강화·유지 및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의 순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024년 4월부터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2025년 11월 말부터 적용된다.